

# 동해해수청, 수중레저사업 안전점검 실시

- 강원권 수중레저사업장 대상,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채균)은 여름철 수중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7월 말까지 수중레저사업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운영 중인 수중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점검 및 20여개소에 대하여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업종별(임대·운송·교육) 등록·자격기준 유지 및 안전설비, 구명장비 비치 등 시설·장비관리 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중레저 이용객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중레저선박의 안전장치(스크류망, 하강사다리 등) 설치 여부와 사업자 의무이행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동해해수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중대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이용요금 미게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즐거운 해양레저 활동 조성·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김진식 (033-520-6231)
		담당자	주무관	고태경 (033-520-6248)